책머리에 5

강은 멀고 느리게 시간이 흐르는 곳, 구포
– 조명희의 「낙동강」과 김정한의 「독메」 13

끊긴 구포다리와 낙동강의 홍수 18
그 시절에 이 강을 건넜던 사람들 24
윤상은 선생의 집터를 찾아 36

동경유학생의 발길을 따라, 중앙동과 동광동
– 염상섭의 「만세전」, 최찬식과 이병주의 소설들 41

붐비는 터미널, 가까운 일본 43
'관부연락선'을 탔던 사람들 49
우체국 삼거리에 서서 55
일본화된 부산거리와 이인화의 두통 65

임시수도, 그 복닥거리는 삶을 따라, '완월동 제면소'에서 범일동 조선방직까지
– 이호철의 『소시민』 71

'완월동' 국수공장에 모인 사람들 75
피난시절의 기호 공간, 국제시장 81
'땅 끝'으로서의 부산과 어느 일본인 신사의 인사 86
'웃부산'으로 가는 길 90

온천과 겨울바다, 물 위의 세계, 해운대
– 이태준의 「석양」과 최서해, 김성종의 소설들 95

동해남부선과 해운대 98
수로의 낙원호텔과 천국호텔 104
1930년대의 해수욕 풍경과 은빛 밤바다 위의 달 108
우리 아이들의 해운대 118

곰삭은 부산, 동래와 온천장 그리고 일광 바다
– 손창섭의 「비 오는 날」과 이주홍, 김정한, 윤후명의 소설, 오영수의 「갯마을」 123

동래읍성에 살았던 이들 126
비의 장막 너머로 사라진 청춘을 찾아 137
붐비던 시절, 온천장과 금강원의 모습들 140
'갯마을' 의 어제와 오늘 148

해풍에 씻긴 근대 한국과 부산의 축소판, 영도
–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과 김은국, 조해일, 천운영의 소설들 155

대평동으로 가는 똑딱선 158
남항동 전차종점에서 166
영도다리에서 다이빙하던 '내 친구 해적' 171

송도와 남부민동, 그리고 완월동 언덕배기
– 서정인의 「물결이 높던 날」과 최인훈의 『하늘의 다리』, 안수길, 이호철의 소설들 187

바다 앞에 서는 두 가지 방법 193
고향을 잃은 두 문학청년이 부산에서 살았던 모습 201

시간 너머에 공간이 있다 – 부산의 원형, 동구

좌천동, 부산의 역사가 모인 곳, 그리고 삼일극장과 삼성극장 212
고관(古館), 또는 수정동 외솔배기 219
초량시장 일대, 그리고 '박기출외과' 찾기 226
남선창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시나마찌, 텍사스촌, 상해거리 229
'매축지' 에서 현대백화점까지 233

요산 김정한 소설의 현장을 찾아서
– 을숙도에서 남해 선구리까지 241

남산동 생가와 범어사 245
「모래톱 이야기」와 을숙도, 그리고 낙동강 253
양산 메깃들과 물금, 화제 – 「사밧재」, 「산서동 뒷이야기」, 「수라도」 258
삼랑진으로 가는 길 – 「뒷기미 나루」 271
남해 – 「월광한」과 「낙일홍」의 바다 277